

## 황새마을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김 기 홍**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kimkh@cni.re.kr](mailto:kimkh@cni.re.kr))

**이 도 경**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lg6678@cni.re.kr](mailto:lg6678@cni.re.kr))

이 연구는 황새서식지로서 청정 마을을 지켜온 예산군 황새마을이 가진 친환경 농업의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롭게 다양한 마을 단위 실천을 통해 예산군 황새마을을 친환경 농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됨.

### CONTENTS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황새마을 친환경 농업 관련 현황
3.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추진경과
4. 황새마을에 적용가능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5.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 요약

- 예산군 황새마을은 2009년 황새복원사업으로 황새 서식지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시작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짧은 시간에 마을 단위의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이루어내고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내는 중차대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음
- 하지만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황새를 키워내 온 황새마을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관광 차원의 기능만 부각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성과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왔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 연구를 통해 청정 황새마을의 친환경농업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황새마을이 가진 친환경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여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황새마을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황새마을에서 친환경 농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재인식에서부터 시작되며 황새서식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에는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살리고 마을 단위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수단이 됨
- 이를 위해서는 황새마을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대한 비전과 기본 구상을 반영한 기본 계획이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음. 세부적으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둔 사회적 농업이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실천, 그리고 청년층 육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 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01 연구 배경 및 목적

### ● 연구 배경

- 예산군 황새마을은 2009년 황새복원사업으로 황새 서식지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시작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짧은 시간에 마을 단위의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이루어내고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내는 중차대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음
- 하지만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황새를 키워내 온 황새마을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관광 차원의 기능만 부각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성과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음
- 특히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실천은 황새공원과 연계한 형태로 황새를 키킨다는 마을의 공동의 목표 아래 평가받아야 하나 그 연대의 끈이 예전 같지 못한 상태로 황새마을 친환경농업을 자체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본래의 연대 기반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 연구 목적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 연구를 통해 청정 황새마을의 친환경농업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황새마을이 가진 친환경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여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선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다음으로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며 현장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황새마을 친환경농업이 처한 상황을 점검하여 황새마을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발전은 물론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02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관련 현황

### 1. 전국 친환경농업 관련 추이

#### ● 전국 친환경농업 현황

- 전국의 친환경농업 인증별 생산 현황은 표 1과 같음
- 전국의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는 총 57,261호로 이 가운데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수는 15,528호로 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농약농산물 생산 농가수는 41,733호인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 생산 면적으로는 총 78,544ha로 이 가운데 유기농산물 생산 면적은 24,666ha로 전체의 31.4%를 차지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총 450,886톤으로 이 가운데 유기농산물이 출하량은 23.3%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친환경농업 생산 농가 가운데 유기농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면적의 경우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 당 생산 면적이 1.59ha로 무농약농산물 생산 농가 당 면적 1.29ha에 비해 약 20%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 전국 친환경농업 인증별 생산 현황(2018)

단위 : 호, ha, 톤, %

구분	유기 비율	계	유기	무농약
농가수	27.1	57,261	15,528	41,733
면적	31.4	78,544	24,666	53,878
출하량	23.3	450,886	105,073	345,813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 「친환경인증통계」

- 전국 친환경농업의 연도별 증감률은 농가수의 경우 연간 64.4%로 감소하고 있으며 면적은 54.4%, 출하량은 75.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2014년 이후 친환경농업 농가수와 면적, 출하량이 급속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검사와 인증 등 농가 부담 비용의 상승과 친환경 쌀 농가와 학교급식 공급 업체 사이의 불안정한 가격보장, 수입 유기 식품의 증가 등이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음

〈표 2〉 전국 연도별 친환경농업(저농약 포함) 추이

단위 : 호, ha, 톤, %

구분	2011 (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b)	증감률 (c=b-a)
농가수	160,628	143,083	126,752	85,165	67,617	61,946	59,423	57,261	△64.4
면적	172,672	164,289	141,652	100,046	82,764	79,479	80,114	78,544	△54.5
출하량	1,852,241	1,498,235	1,181,425	825,482	577,456	571,217	496,381	450,886	△75.7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 「친환경인증통계」

## 2. 충남 친환경농업 관련 추이

### ● 충남 친환경농업 현황

- 충남의 친환경농업 인증별 생산 현황은 표 3과 같음
- 충남의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는 총 4,132호로 이 가운데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수는 1,957호로 4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농약농산물 생산 농가수는 2,175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충남의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수의 비율(47.1%)이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수의 27.1%인 것에 비해 약 1.75배 큰 것으로 충남에서는 친환경농업 가운데서도 유기농업 생산이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충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면적으로는 총 5,125ha로 이 가운데 유기농산물 생산 면적은 2,833ha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총 39,619톤으로 이 가운데 유기농산물이 출하량은 39.3%를 차지하고 있음

- 충남의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 당 생산 면적은 1.45ha로 무농약농산물 생산 농가 당 면적 1.05ha에 비해 약 30%가량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는 전국적인 수준(유기 1.59ha, 무농약 1.29ha)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것임을 알 수 있음

〈표 3〉 충남 친환경농업 인증별 생산 현황(2018)

단위 : 호, ha, 톤, %

구분	유기 비율	계	유기	무농약
농가수	47.4	4,132	1,957	2,175
면적	55.3	5,125	2,833	2,293
출하량	39.3	39,619	15,574	24,045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 「친환경인증통계」

- 충남의 친환경농업의 연도별 증감률은 농가수의 경우 연간 57%로 감소하고 있으며 면적은 67.9%, 출하량은 66%로 감소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2014년 이후 친환경농업의 농가수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출하량은 2013년 대비 급감하여 나타났음. 이는 농가의 고령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약화 등이 요인이 됨

〈표 4〉 충남 연도별 친환경농업(저농약 포함) 추이

단위 : 호, ha, 톤, %

구분	2011 (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b)	증감률 (c=b-a)
농가수	9,603	9,377	8,173	6,984	5,544	4,976	4,321	4,132	△57.0
면적	15,950	14,554	11,164	9,411	6,950	6,100	5,229	5,125	△67.9
출하량	116,636	97,220	113,852	73,993	51,713	50,634	43,955	39,619	△66.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 「친환경인증통계」

- 충남의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서천군이 664.2ha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순이었음
- 충남에서 인증 면적이 가장 많은 서천군에서는 최근 서천군 지역 농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서래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어 무농약 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무농약 쌀 인증 면적이 충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의 전체 경지 면적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청양군(7.7%)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주시, 서천군, 홍성군의 순이었음
- 예산군의 경우 충남에서 9번째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군의 경지 면적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1.5%로 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 전체로 볼 때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충남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2018)

단위 : ha

구분	친환경 인증 면적				전체 경지면적	친환경 인증 비율	
	유기	무농약	계	순위		비율(%)	순위
천안시	188.2	144.4	332.6	7	13,083	2.5	7
공주시	300.3	214.7	515	6	10,234	5.0	2
보령시	108.3	42.7	151	11	12,890	1.2	10
아산시	456.2	148.9	605.1	5	14,795	4.1	5
서산시	87.7	61.2	148.9	12	26,199	0.6	13
논산시	51.8	246.5	298.3	8	18,699	1.6	8
계룡시	0	0.4	0.4	15	380	0.1	15
당진시	36.1	121.5	157.6	10	24,479	0.6	12
금산군	15.3	37.8	52.5	13	7,571	0.7	11
부여군	296.4	345.2	641.6	2	15,831	4.1	6
서천군	136.2	528	664.2	1	13,203	5.0	3
청양군	487.9	149.6	637.5	3	8,257	7.7	1
홍성군	527.8	81.3	609.1	4	13,337	4.6	4
예산군	116.4	156.2	272.6	9	18,565	1.5	9
태안군	23.9	14.8	38.7	14	14,055	0.3	1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 「친환경인증통계」,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 충남의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홍성군이 총 6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산시, 서천군, 부여군의 순이었음
- 전체 농가 대비 친환경농가 비율은 서천군이 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성군, 아산시, 청양군의 순이었음
- 예산군의 경우 인증 농가 순위는 충남에서 9번째로 예산군의 전체 농가 인구 9,896호의 2.1% 수준으로 8번째인 것으로 나타나 인증 농가 역시 충남 전체로 볼 때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표 6〉 충남 시군별 친환경 인증 농가(2018)

단위 : 호

구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전체농가	전체농가 대비 친환경농가 비율	
	유기	무농약	계	순위		비율(%)	순위
천안시	118	157	275	6	11,477	2.4	6
공주시	106	104	210	8	9,554	2.2	7
보령시	67	63	130	10	8,098	1.6	11
아산시	446	175	621	2	8,835	7.0	3
서산시	32	68	100	12	9,833	1.0	13
논산시	39	172	211	7	10,466	2.0	10
계룡시	0	5	5	15	514	1.0	14
당진시	15	83	98	13	11,702	0.8	15
금산군	31	97	128	11	6,284	2.0	9
부여군	184	241	425	4	8,615	4.9	5
서천군	78	503	581	3	6,641	8.7	1
청양군	187	181	368	5	5,761	6.4	4
홍성군	528	147	675	1	8,411	8.0	2
예산군	48	160	208	9	9,896	2.1	8
태안군	78	19	97	14	7,393	1.3	1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 「친환경인증통계」,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3. 예산군 친환경농업 관련 추이

#### ● 예산군 친환경농업 현황

- 예산군의 친환경농업의 인증별 생산 현황은 표 7과 같음
- 예산군의 친환경농업 인증별 생산 현황은 농가수 총 208호, 면적은 273ha, 출하량은 총 1,451톤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유기농업 실천 농가는 48호로 전체 친환경농가수의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업 생산 면적은 116ha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 면적의 4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기농산물 출하량은 372ha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의 25.6%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친환경농업 생산 농가 가운데 유기농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면적의 경우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 당 생산 면적이 2.41ha로 무농약농산물 생산 농가 당 면적 0.98ha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들은 비교적 넓은 면적 규모에서 유기농업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충남 예산군 친환경농업 인증별 생산 현황(2018)

단위 : 호, ha, 톤, %

구분	유기 비율	계	유기	무농약
농가수	23.1	208	48	160
면적	42.7	273	116	156
출하량	25.6	1,451	372	1,079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 「친환경인증통계」

- 예산군의 친환경농업의 연도별 추이는 표 8과 같음

- 농가수의 경우, 2014년에 480호였으나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특히 2015년 440호였던 것이 2016년에는 341호로 약 100호에 이르는 농가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294호로 전년도에 비해 약 50호가 줄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208호로 2017년에 비해 다시 90여 농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그 결과, 농가수는 지난 5년간 평균 56.7% 감소하여 2014년에 비해 절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면적의 경우, 2014년에 525ha에서 2015년 499ha로 26ha가 줄어들었으며,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159ha가 줄어들었으며,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0ha가,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7ha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생산 면적은 지난 5년간 평균 48% 감소하여 2014년에 비해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출하량의 경우, 2014년에 5,663톤이었으나 2015년에는 3,424톤으로 2,239톤 줄어들었으며,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1,951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37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다시 259톤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그 결과 농가수와 면적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에 반해 2017년에 237톤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지난 5년간 74.4%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8〉 충남 예산군 연도별 친환경농업(저농약 포함) 추이

단위 : 호, ha, 톤, %

구분	2014 (a)	2015	2016	2017	2018 (b)	증감률 (c=b-a)
농가수	480	440	341	294	208	△56.7
면적	525	499	340	310	273	△48.0
출하량	5,663	3,424	1,473	1,710	1,451	△74.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 「친환경인증통계」

주: 2014년 이전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예산군 내 친환경 벼 재배단지 현황은 표 4와 같음
- 예산군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는 광시면과 덕산면, 고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총 234명 255ha에서 실천해오던 것이 2019년 현재는 210명 225ha에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8년에 비해 광시면과 덕산면은 생산 농민이 각각 7명, 23명 줄어들어 각각 113명, 74명이, 고덕면은 생산 농민이 2018년 12명에서 2019년 2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현재 광시면이 113명, 127ha로 가장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덕산면이 74명, 59ha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고덕면이 숫자는 적지만 생산 농민 당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이 1.7ha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다음으로 광시면이 1.12ha, 덕산면은 0.80ha으로 가장 작은 규모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충남 예산군 내 친환경 벼 재배단지 현황

단위 : 가구, ha

	2018		2019		증감	
	가구	면적(ha)	가구	면적(ha)	명	면적(ha)
광시면	119	143	113	127	-7	-16
덕산면	94	77	74	59	-23	-18
고덕면	21	35	23	39	2	4
총계	234	255	210	225		

자료 : 예산군 농정유통과 내부자료

#### ● 예산군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 예산군 농가수의 연도별 증감률은 농가수의 경우 연간 7.3%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는 9.4%로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충남 예산군은 충남지역 전체 15개 시·군 중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7.9%(2014년)에서 8.0%(2018년), 농업인구 7.6%(2014년)에서 8.2%(2018년)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표 10〉 충남 예산군 농가수, 농업인구 추이(5개년)

단위 : 가구, 명, %

구분		2014 (a)	2015	2016	2017	2018 (b)	증감률 (c=b-a)
전국	농가수	1,120,776	1,088,518	1,068,274	1,042,017	1,020,838	△8.9
	농업인구	2,751,792	2,569,387	2,496,406	2,422,256	2,314,982	△15.9
충남	농가수	135,335	132,008	128,275	125,886	123,480	△8.8
	농업인구	328,993	308,455	296,801	288,800	276,426	△16.0
예산군	농가수	10,671 (7.9%)	10,314 (7.8%)	10,041 (7.8%)	9,922 (7.9%)	9,896 (8.0%)	△7.3
	농업인구	24,979 (7.6%)	23,744 (7.7%)	24,641 (8.3%)	23,743 (8.2%)	22,629 (8.2%)	△9.4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2015년 예산군 연령별 농가의 비율은 50대 이하가 전체의 7.1%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이 92.9%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예산군 농가의 평균 연령은 무려 66.7세로 충청남도 전체의 평균 연령 66.3세 보다 0.4세나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충남의 경우 65~79세 비율이 전체의 16%를 차지하여 전 구간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예산군의 경우는 그보다 10살이 많은 75~79세 비율이 전체의 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충남 예산군 농업 부문에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음

〈표 11〉 충남 예산군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가구, %

연령	충남	예산군
20~24세	12(0.0)	1(0.0)
25~29세	77(0.1)	2(0.0)
30~34세	391(0.3)	30(0.3)
35~39세	1,061(0.8)	71(0.7)
40~44세	3,060(2.3)	243(2.4)
45~49세	5,753(4.4)	388(3.8)
50~54세	11,018(8.3)	780(7.6)
55~59세	17,432(13.2)	1,389(13.5)
60~64세	19,204(14.5)	1,504(14.6)
65~69세	<b>21,158(16.0)</b>	1,653(16.0)
70~74세	20,128(15.2)	1,527(14.8)
75~79세	19,301(14.6)	<b>1,650(16.0)</b>
80세 이상	13,413(10.2)	1,076(10.4)
<b>합계</b>	<b>132,008(100.0)</b>	<b>10,314(100.0)</b>
평균 연령(세)	66.3	66.7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자료 : 2015년 통계가 최신자료임

- 2015년 예산군 경작규모별 농가의 비율은 경작규모 0.1ha 미만인 1.8%, 경작규모 0.1ha이상 1.0ha 이하 농가가 전체의 53.9%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작규모는 0.3~0.5ha로 충남 전체의 15.7%에 해당되는 반면, 예산군의 경우는 1.0~1.5ha가 전체의 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경작규모 1.0ha 이상의 농가는 전체의 4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충청남도 전체에서 경작규모 1.0ha 이상의 농가 비율이 37.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며 대부분 논(전) 농업을 통해 규모화·기계화 된 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2〉 충남 예산군 경작규모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ha/가구, %

경작규모별	충남	예산군
경지없음	1,183(0.9)	104(1.0)
0.1ha 미만	2,367(1.8)	183(1.8)
0.1~0.2	15,025(11.4)	861(8.3)
0.2~0.3	10,427(7.9)	670(6.5)
0.3~0.5	<b>20,674(15.7)</b>	1,431(13.9)
0.5~0.7	15,241(11.5)	1,180(11.4)
0.7~1.0	17,253(13.1)	1,421(13.8)
1.0~1.5	16,690(12.6)	<b>1,544(15.0)</b>
1.5~2.0	10,301(7.8)	1,028(10.0)
2.0~2.5	5,469(4.1)	480(4.7)
2.5~3.0	3,936(3.0)	396(3.8)
3.0~4.0	4,849(3.7)	470(4.6)
4.0~5.0	2,495(1.9)	173(1.7)
5.0~6.0	1,535(1.2)	100(1.0)
6.0~7.0	1,321(1.0)	87(0.8)
7.0~10.0	1,626(1.2)	105(1.0)
10.0ha 이상	1,616(1.2)	81(0.8)
<b>합계</b>	<b>132,008(100.0)</b>	<b>10,314(100.0)</b>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자료 : 2015년 통계가 최신자료임

## 03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추진경과

### 1. 황새생태농업연합회의 활동

#### ● 황새마을의 시작

- 2009년 황새복원사업지로 예산군이 선정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주민교육이 시작됨
- 2010년 4월에는 대리황새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교육과 함께 논둑쌓기, 둑병조성, 어도설치와 같은 황새서식지로서의 생태 농업 기반 준비를 해나가게 됨
- 2010년 8월에는 황새논살이 작목반 발대식을 거쳐 10농가, 4ha에서 무농약 벼 생산을 시작함. 같은 해 10월에는 가을걷이 행사를 개최함
- 2011년에는 예산군청으로부터 친환경생태농업단지조성지원사업 결정을 받고 4월에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창립총회를 통해 “황새생태농업연합회는 황새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황새의 서식지조성에 협력하며,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와 지역생태자연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목적 하에 설립함. 한해만에 67농가 49ha에서 무농약과 전환기 유기농 벼 생산을 하게 됨
- 일본과의 교류도 시작되어 8월에는 황새마을 주민이 토요오카시 황새공원 연수를 다녀오기도 함
- 2012년 4월, 5월에는 황새복원센터와 공동으로 시범논에 대해 제1차 논생물조사 및 어도설치를 진행하였으며 작목반 단위에서 대전과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모내기체험사업을 시행하기도 함
- 2012년에는 103농가 99ha에서 유기농과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벼 생산이 진행되었으며 밀크린 시범논을 운영하기도 함
- 같은 해 12월에는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 등록하게 됨. 총 14개 작목반

이 참여함(가덕1리작목반, 가덕2리작목반, 관음리작목반, 대리작목반, 시목1리작목반, 시목2리작목반, 은사리작목반, 장신용두리작목반, 장전리작목반, 황새논살이1작목반, 황새논살이2작목반, 황새논살이3작목반, 황새논살이4작목반, 황새밭살이작목반 등)

#### ● 마을 단위 참여의 확산

- 2013년에는 12개 마을에서 참여하여 130농가 148ha에서 친환경 벼 생산이 이루어짐. 이 시기는 농가의 증가는 물론 농가 당 재배 면적에서도 성장하는 시기가 됨. 특수미로서 홍미와 녹미, 흑미를 시범적으로 재배함
- 예산군과 충남의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아이쿱 소비자협약식에도 참여함. 5월에는 ‘황새의춤’ 2kg을 포장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기도 함
- 2014년에는 13개 마을에서 참여하여 150농가, 175ha에서 유기농과 무농약 벼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포트육묘 방식을 시범운영하였고 풀무주곡(아이쿱), 한살림, 충남우리쌀, 덕산농협에 수매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함
- 2014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가 군청과 공동으로 황새마을 논생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0여종을 조사함. 그 해 12월에는 제3회 논생물 다양성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예산군의 황새마을마들기 사례를 발표함

#### ● 친환경농업의 정착화

- 2015년에는 광시면과 대술면 등 이웃 면 지역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총 18개 마을에서 실시함. 하지만 수적으로는 128농가, 148ha로 전년도에 비해 20여 농가가 줄어듦
- 아이쿱과 한살림, 덕산농협, 로컬푸드협동조합, 유통기관 등에 수매를 확대하게 됨
- 2015년에는 충남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3월에는 황새축제를 준비하였으며 9월에 제10회 한일논생물조사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황새야생이 복귀하게 됨. 12월에는 대리지구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이 완료됨
- 2016년에는 논 농사를 하는 123농가 이외에 친환경 밭작물 하는 12농가가 생겨났으며, 각각 140ha와 8ha에서 유기농 및 무농약 재배가 이루어짐. 밭 작물의 경우 아로니아, 고사리, 고추, 들깨, 감, 연잎차, 연근 등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예산군 친환경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2016년 5월에는 장전리 서식지에 황새야생을 방사하였으며 황새서식지조성에 협력하면서 예산친환경농업인회의를 개최함. 6월에는 복합농업으로 큰정거미새우 논양식 시범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가을에는 친환경 벼 1,000톤을 생산하고 수매함. 겨울에는 행복중심생협과 덕산농협 공동으로 친환경 쌀 200톤을 공급협약 체결을 하게 됨
- 2017년에는 논농사 짓는 농가가 전년도에 비해 조금 늘어나 140농가가 되었으며, 145ha에서 유기와 무농약 벼 재배가 이루어짐
- 2017년에는 생태둑병에 메기입식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충남논습지네트워크와 논생물 조사를 실시함. 같은 해 겨울에는 예산군친환경농업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였으며 예산군의 친환경급식 출하회를 구성하게 됨
- 2018년에는 논 농사 141농가와 밭 농사 2농가에서 유기농과 무농약 생산이 이루어짐
- 2018년에는 예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함

〈표 10〉 황새연합회 친환경농산물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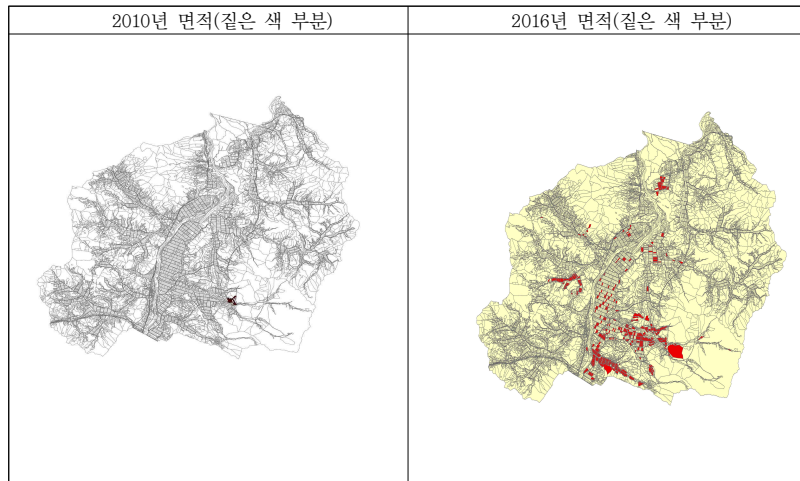
연도	농가 수	면적 (ha)	생산량 (벼, 톤)	친환경 인증	품 중	비 고
2010	10	4	11.2	무농약	호품	*광시면 대리 10농가 시작
2011	67	49	294	무농약 전환기	호품 추청	*대리, 시목1·2리, 가덕1리 4개마을 참여
2012	103	99	594	유기 전환기 무농약	호품, 새누리 밀크린	*5개 마을 참여 *시범논운영: 밀크린
2013	130	148	888	유기 전환기 무농약	호품, 새누리	*12개 마을 참여 *특수미재배시범: 홍미, 녹미, 흑미
2014	150	175	1,100	유기 무농약	호품, 새누리 동진찰, 백옥찰, 밀크린	*광시면 13개 마을 참여 *포트육묘방식시범운영 *풀무주곡(아이쿱), 한살림, 충남우리쌀, 덕산농협 수매
2015	128	148	1,065	유기 무농약	삼광, 새누리, 동진찰	*‘삼광’고품질단지조성 *광시면, 대술면 등 18개 마을 참여 *포트육묘방식 일부운영 *아이쿱, 한살림, 덕산농협, 로컬푸드협동조합, 유통기관 등 수매

2016	123 (논)	140	1,000	유기 무농약	삼광 백옥찰, 새누리, 대보	*‘삼광’고품질단지조성 *광시면, 대술면, 오가면, 응봉면 등 참여 *포트육묘방식 적극보급 *아이쿱, 한살림, 덕산농협, 유통기관 등 수매
	12 (밭)	8	-	무농약	아로니아, 고추, 고사리, 들깨, 감, 연잎차, 연근 등	*예산군 친환경급식공급을 위한 친환경발작물 공급준비 *광시면 대리, 마사리 등
2017	140	145	910	유기 무농약	삼광, 백옥찰, 대보	*삼광 벼 생산단지조성 *포트육묘 보급 *아이쿱, 덕산농협, 로컬푸드협동조합, 한살림, 유통기관 등 수매
2018	141 (논)	143	1,000	유기농 무농약	미호 삼광, 백옥찰	*미호, 삼광벼 생산단지조성(‘미호’-생산확대 목적) *포트육묘 보급 *아이쿱, 덕산농협, 로컬푸드협동조합, 한살림, 유통기관 등 수매
	2 (밭)					

자료 : 황새연합회 내부자료

● 예산군 황새마을 친환경농업의 증가

- 황새연합회 내부자료에 의하면 2010년 시작 당시 4ha에서 시작하였으나 2016년 현재 140ha 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그림 1)
-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에는 황새조성지로서 마을이 갖는 의미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의 공유와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마을 단위의 참여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황새연합회 친환경농산물 생산 면적의 증가

자료 : 황새연합회 내부자료

## 2.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관련 현장 면담

●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관련 현장 조사 개요

- 예산에서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을 방문하고 황새연합회 담당자 및 대리마을이장, 부녀회장 등과 친환경농업 실천 현황 마을 사정에 관한 면담 및 간담회를 2회 진행하였음

● 예산군 황새연합회 활동 면담

- 일시: 2019.04.19. (금)
- 장소: 황새공원 2층 카페, 면담 후 친환경농업 현장 및 황새 사육장 방문
- 참석자: 황새연합회 서동진 대표, 예산군 농정유통과 이종욱 과장, 김진영 주무관, 충남연구원 김기홍 책임연구원, 이도경 연구원
- 주요 내용
  - 현재 황새마을 친환경 농업은 황새들의 서식지 마련을 위해 어렵게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친환경 농업이 축소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농자재 문제, 판매를 위한 유통 경로 문제, 단가문제 등에 부딪히고 있어 친환경농업으로 농촌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려면 '조직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던 소액의 운영비로 친환경 농업에 관련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초기 3~4년간은 1년에 회의를 40회 정도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운영비가 지원 중단된 이후, 현재 주변 마을과 소통도 줄어들고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도 중단됨
  - 처음 예산군 친환경 농업 4ha에서 시작해서 150ha까지 확대 되었다가 인증사고 발생 후 점점 축소되었고 일반 관행농업 쌀과 가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현재 140ha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예산군 농정과에서 생산기계지원사업, 논둑지원사업, 논에 물막이 지원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농업 생산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황새서식지 조성과 친환경농업을 연계한 증장기 계획이 필요함
  - 현재 황새 마릿수 대비 친환경 쌀 재배 면적 자료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며, 예산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을 인증해 줄만한 브랜드나 인증마크 역시 필요함. 일본 토요오카시 타지마 지

역의 황새쌀 인증과 같이 황새특구를 통해 친환경농업 전체를 묶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 스토리텔링을 통해 황새의 의미와 희소성을 강조하고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여 황새마을-친환경농업의 로드맵을 구축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광시면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잘 살려 광시에서 유명한 한우에 황새쌀을 연계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군의 포장재 지원사업 활용(예산군의 대표 브랜드인 '예가정성' 브랜드 삽입)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 예산군 광시면 대리 황새마을 마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 일시: 2019.06.20. (목)

○ 장소: 대리마을회관

○ 참석자: 황새연합회 서동진 대표, 대리 이장, 윤봉균 고문, 부녀회장 등 마을지도자, 예산군 농정유통과 이종욱 과장, 김진영 주무관, 충남연구원 김기홍 책임연구원, 이도경 연구원

○ 주요 내용

- 예산군 행정과 광시 황새마을 주민과의 소통과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황새공원이 나 행정에서 황새마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협조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당초 황새식식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에 연간 1,000만원씩 지원하면서 마을 사람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지속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 주민들에게 황새공원 내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 도농교류센터 등을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었으나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황새공원 방문으로 황새마을에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나, 쓰레기, 소음 등 피해 사례만 증가하고 실질적인 주민 소득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많음
- 황새마을 주민들은 황새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있음. 현재 황새마을의 도정(소규모 정미소) 지원사업(7억 4천만 원)마저 현재 조건 미달(출자금 1억이 없어서)로 정지된 상태로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작물이나 임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생산 기반이 미흡하여 품목 다양화가 필요하며 마을 공용 임야인 백월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도 포함되면 마을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황새마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을 수립하여 각 영역별로, 위치별로 농협+농민+관광과 등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야기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황새복원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며 권역문제 등과 달리 친환경농업이 시작된 곳이 이곳 대리마을이기 때문에 황새와 사람이 공생하는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초월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할 것임. '사람과 황새가 공존할 수 있는 삶' 을 지향해야 하며 사람이 황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친환경 농업' 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황새라는 것을 가지고 공원과 마을이 함께 가야함. 황새를 두고 관광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농업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군 문화관광과와 농정과의 간막이를 없애고 협의 필요



## 04 황새마을에 적용가능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 1. 사회적 농업의 실천

#### 1.1. 사회적 농업의 정의 및 정책 동향

##### ● 사회적 농업의 정의

-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하며 최근 농업을 통한 농촌 지역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음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저소득층 등)을 말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함
- 사회적 농업은 그 대상이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농약이나 제초제 등의 사용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이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됨
- 다시 말해 사회적 농업은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잘 마련된 곳에서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실천해 온 농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일이 본래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이 지향해 온 바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 ● 중앙정부 동향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여 ‘사회적 농업’이라는 사업(사회

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지침, 2018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을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을 통해 돌봄, 교육, 일자리 창출의 기능을 하는 농장을 선정하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을 통해 5년간 60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국비 42, 도 5, 시군 13)
- 2018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9개소와 2019년 본 사업으로 9개소가 선정됨
- 2020년도에는 기존의 돌봄과 교육, 고용에서 힐링과 체험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12월 현재 2020년도 사업자는 12개소를 선정한 상태임. 더불어 지역 단위의 거점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거점농장 4개소를 선정함

#### ● 충청남도 동향

-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모델이 되는 농장으로 홍성군 장곡면에 위치한 '행복농장' 이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행복농장 모델이 기반이 되어 국비사업이 마련됨
- 하지만 홍성군은 물론 충남 전체적으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비 사업에도 충남에서는 행복농장 한 곳만 선정되어 지원되고 정작 본 사업에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상태였으나, 지난 1년 사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2019년도에 들어 충청남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김연 위원장)에서 복지 차원에서 농업과 결합한 형태의 사회적 농업의 가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2019. 04~11, 과업 완료)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마련하였고 2020년도 충남도 사업 조례안 발굴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 결과, 도 차원에서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도의회 심의를 통과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농정국 농업정책과에서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안)을 통해 읍면 단위에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준비하는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 1. 2. 사회적 농업의 유형

### ● 유형 1 : 돌봄

-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이나 단체가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되며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나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업 활동 수행하며 보건복지 관련 공공 기관이 돌봄을 목적으로 농업 활동을 활용하기도 함
- 주간보호센터(Day-Care Center)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과 시간에 농업활동 수행, 병원, 요양 시설 등의 보건복지 기관에서 농업 활동을 재활 치료 프로그램으로 활용
- 네덜란드와 벨기에 플란더스(Flanders) 지방의 돌봄 농장, 아일랜드의 재활 치료 농장(therapeutic farms),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 유형 2 : 고용

- 지적·신체적 장애인, 장기 실업자, 이주민 등 불리한 여건 사람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 직업 연수생으로 임금 지급, 임금의 일부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특별 계약을 맺거나 세제 혜택 가능
- 프랑스의 사회 통합 농원(social inclusion gardens),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 유형 3 : 교육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장의 일상이나 건강한 먹거리, 자연 등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과 학습 장애 아동이나 학교 생활 부적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짐
- 프랑스의 교육 농장(ferme pédagogique), 독일의 학교농장(school farms)이 활성화.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사례가 있음

### ● 기타

- 보건복지 또는 교육 관련 공공 기관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로 아일랜드 재활 치료 농장 등이 있으며 가족 기반 실천 유형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의 돌봄 농장 등이 있음. 돌봄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직원으로 둔 전문 사회복지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도 실천하고 있음

- 일본은 운영 주체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실천 유형이 다양하며, '농복연계' (농업+복지)로 통칭되며 주로 장애인, 고령자, 빈곤 계층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고용 및 사회 참여 독려, 농업법인, 일반 농가, NPO 법인, 사회복지 기관, 지방정부 참여

## 2.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 2.1.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정의 및 정책 동향

####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란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에 착안하여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종합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련되었음
- 농업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개인 영역의 활동과 공동 영역의 활동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차원의 농업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함

#### ● 중앙정부 동향

- 중앙정부는 2019년에 전국에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사업규모로 마을당 연간 1.5억원을 5년간 7.5억원 지원(지자체경상보조, 국비 100%)으로 두고 있음
- 사업내용으로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실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① 농업환경 진단 및 관리, ② 농업환경 관리계획 이행 지원, ③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이 포함됨
-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실천적 활동을 농민 개인과 공동 활동을 통해 계획적으로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토양 양분관리와 침식 방지, 농업용수 수질개선, 농촌경관 개선, 농업유산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개인·공동 활동이 포함됨(표 11 참조)

〈표 11〉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활동(예시)

분야	주요 활동(예시)
토양	비료·가축분뇨 사용량 감축, 농업부산물의 농지 환원,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 환원, 병해충·잡초 방지를 위한 물리적·생물학적 방제·제초 등
용수	농경지 말단부 경작 금지, 농업용수원에 수생식물 식재, 논 절수 관개 등
대기	무경운·최소경운 등 보전경운, 미생물 등 축산악취 저감 제재 사용 등
경관 생활	공동공간에 화목 및 초화류 식재,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배출 등
유산 생태	전통농법 및 농업경관의 관리·보전, 농업 및 공동체문화 유지·계승, 재래종·토종 품종 재배, 생태교란 식물 제거, 생태둑명 조성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

- 추진절차로는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 활동 지원(기본 5년)을 하며, 1년차에는 주민 교육,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농업환경 조사·진단(토양 양분수지, 농업용수 수질, 보유 경관 및 유산, 생물종 및 개체수 등), 관리계획 수립, 지자체-마을 간 협약, 활동 이행 및 점검을 하게 됨
- 2~5년차에는 주민 교육, 관리계획 및 협약 내용 조정, 활동 이행 및 점검, 환경개선 효과 평가, 활동비 지원 등 프로그램 계속 추진을 진행하게 됨
- 사업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단위)과 주민
  - 마을에서 농업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
  - 마을 대표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마을 협의체를 구성
  - 대상 마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마을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자는 개인 활동 참여 가능
- 2019년도 사업대상자로는 충남 홍성군과 경북 상주시가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음

#### ● 충청남도 동향

- 충청남도는 국비 사업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이 마련되기 전에 2016년 5월부터 2018년 2



월에 걸쳐 보령시 장현마을과 청양군 화암마을을 대상으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음

- 충남도 사업은 농업직불금을 개선하고 이를 대신하는 사업안으로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국비 사업으로는 연계되었지만, 국비 사업 마련으로 지역 차원의 사업 지속성은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에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농가수당 형태의 사업으로 안착됨
- 충남도의 선진적인 사업의 시행으로 국비 사업으로 연계되었으며 2019년에 충남에서는 홍성군 홍동면과 장곡면이 사업 대상자가 됨
- 충남도는 오래도록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다양한 지역의 경험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으로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의 확산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음

### 3. 황새마을의 가능성

#### ● 지역의 특성

- 황새마을은 2009년 황새복원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친환경농업이 시작되어 이후 다양한 형태로 친환경농업 주민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황새서식지 조성을 기반에 둔 친환경농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생활문화(공동영농·식사, 마을목신제, 공씨할아버지제사)가 유지되고 있는 편으로 지역공동체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음
- 한편,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들의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황새마을 내에서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 할 수 있을지 친환경농업 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임

#### ● 기본 개념

- 지난 10여 년간 황새서식지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왔으며, 이러한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이 갖는 철학과 의미를 마을 전체가 잘 이해하고 있어 사회적 농업은 물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마을 단위의 실천이라고 하는 상기 두 사업이 기본 개념으로 삼은 방향은 황새마을이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경험과 맞닿아 있음

#### ● 사회적 농업과의 연계성

- 우선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외계층 가운데 지역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 사업이나, 서울 등 대도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 또한 역량이 강화된다면 지역의 주간보호센터 등과 연계한 장애인 돌봄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농업은 무엇보다도 마을이라는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의 생태계와 농촌살이의 어우러짐을 통해 ‘돌봄’과 ‘교육’, ‘일자리 창출’을 하는 실천으로 황새마을이 가진 역량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짐

####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 다음으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경우, 그 세부적인 활동들 가운데 농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둠벙조성이나 논둑 풀 보존, 논둑 꽃 식재, 미꾸라지 및 메기농법 등으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노력들은 이미 황새마을에서 실천되어 온 것들로 이해되어짐
- 개인 혹은 공동으로 실천을 결정하고 이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며 지역 차원에서 그간의 노력에 더하여 다시 한 번 지역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도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05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 1. 기본 방향

### ● 황새마을에서 친환경농업이 갖는 의미 재인식

- 황새마을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와 같은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황새가 살아갈 수 있는 청정 지역을 유지하여 황새서식지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과 사명이 있었음
- 이러한 노력은 결국에는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살리고 마을 단위의 친환경농업 실천은 마을공동체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수단이 됨
- 하지만 황새마을은 고령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황새서식지로서의 의미도 지역 농민들의 여러 형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새공원과 연계한 차원의 노력들은 사라져 가고 있어 황새 서식지로서 마을을 지켜온 농민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름
- 이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체적인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을 통해 다시 한 번 황새마을이 하나 되고 친환경농업의 원동력을 되찾아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마을 단위의 자체적인 노력들은 결국은 마을 단위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이러한 시도들은 황새공원이 새롭게 마을 단위의 노력과 결합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됨

## 2. 예산군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필요

### ● 예산군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기본 계획 필요

- 황새마을이 가진 친환경농업이 지금까지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농업이 가지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로 되돌아와야 할 것임
- 황새마을이 가지는 지역 단위의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인 예산군 더불어 황새마을의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대한 비전과 기본 구상을 반영한 기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이는 나아가 줄어드는 농업 인력과 고령화 되어 가는 친환경 분야의 농업 현실과 고령화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는 예산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황새마을의 친환경농업을 계기로 예산군의 타 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확산되고 활성화되는 선제적인 대응 방안으로 자리하게 될 것임
- 이러한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발전 계획은 한 해에 그치지 말고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이어야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 가야 할 것임
- 전국적으로 그 어디에도 없는 청정 황새마을 이미지는 예산군 농업 발전의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자원으로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발전 계획은 그 기초적인 지침서가 될 것임

### ● 현실적인 예산군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발전 계획에 대한 구상 필요

- 체계적 구상 : 청정 황새 이미지를 활용한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발전 계획 마련은 친환경농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현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농정 방향과도 일치하며 농촌 지역의 다양한 농업 환경 보전 요소를 친환경농업을 통해 사전에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농업에서 나아가 농촌 지역 사회를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는 체계적인 구상이 필요함
- 맞춤형 구상 : 현재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발전 계획은 지역의 역량에 따라 마을 단위의 실천을 통해 환경과 생태, 복지 등 맞춤형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 사업과 같은 청년층 육성을 통해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을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한계마을과 마을소멸론에 대응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양극화 방안에 대한 맞춤형 구상으로 확장되어 가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예산군을 보다 역동적이고도 활력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임
- 전략적 구상 : 현재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농업과 같은 국비 사업과 연계되도록 전략적인 구상을 통해 다양한 자원과 지원 하에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청정 황새 이미지와 연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삶의 실현은 물론 황새마을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살려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꾸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정부 및 행정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1~2018), 친환경인증통계
-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https://www.nongsaro.go.kr>)
- 예산군 내부자료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1~2018). 농림어업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1~2018). 농업면적조사. 대전: 통계청.
- 향새연합회 내부자료